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김경준 선임연구위원

김정숙 연구위원

요약¹⁾

- 최근 국가경쟁력 강화의 수단으로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민족 네트워크 강화 추세에 따라 우리 정부에서도 2013년 이후부터 재외동포를 인적자원으로 인식하고 한민족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이 연구는 지속적인 한민족네트워크의 유지를 위해 동포사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방안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2015년부터 재외동포청소년 연구를 대륙별·국가별로 실시해 왔으며, 2019년에는 오세아니아 지역(호주, 뉴질랜드) 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정책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음. 이를 위해 호주와 뉴질랜드 초·중·고 학생 4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409명을 분석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등 생태학적 분석틀에 따라 설문 및 면담 내용을 분석하여 호주 및 뉴질랜드 동포청소년의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과제를 7개 정책영역별로 4~6개씩 개발하여 총 35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음.

1) 본고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년 고유과제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II'를 발체·요약한 것임.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족 네트워크의 국제적 추세

- 세계 각 국가들은 타 국가와의 무한 경쟁 속에서 자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경쟁력 확보의 과제를 안고 있음. 하지만 세계의 통합화 경향으로 이제 더 이상 한 국가의 능력과 노력만으로는 국제사회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음. 이에 국가 간의 연대 또는 지역 간의 연대가 강화되고, 최근에는 민족의 연대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가 큰 주목을 받고 있음.

▶ 재외동포를 인적자원으로 설정하고 한민족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 유지

- 정부는 2013년 이후 인적자원의 범위를 한민족으로 확대하면서 한인 차세대를 21세기를 이끌어 갈 중요한 자산으로 보고, 한민족 정체성 유지와 네트워크 구축에 관심을 가지는 정책을 수행하였음(이진영, 강성봉, 김판준, 임영언, 정호원, 2013).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상네트워크의 활성화 및 정치력 신장, 차세대 인재 육성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35) 재외한인을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 간주하면서 재외한인 네트워크 강화를 주요 정책기조로 유지하고 있음.

▶ 동포사회의 세대 교체에 따른 맞춤형 차세대 동포 정책 수립 필요

- 한편, 재외동포 사회가 1세대 중심에서 1.5세대, 2세대 등으로 전환됨에 따라 재외동포 차세대들은 동포 1세대와는 달리 한민족 정체성이나 모국과의 연계가 약하고, 정체성 갈등이나 주류사회로의 진출 등 1세대와는 또 다른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김경준, 김태기, 2015:153~161). 이에 따라 재외동포들은 현재 한국 정부에서 기대하는 인적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음. 따라서 이들 차세대들을 미래에 대한민국의 우수한 인적자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한민족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재외동포청소년을 글로벌 코리아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수행되었음.

- 2015년부터 미주, CIS, 남미, 유럽 등을 연구대상 지역으로 설정하여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오세아니아 지역(호주, 뉴질랜드) 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수행하였음.

2. 연구결과

1) 조사 개요

▶ 본 조사는 2019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호주 및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초·중·고 동포청소년 총 457명(호주 225명, 뉴질랜드 232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

▶ 조사내용은 거주국 내 한글학교 교육경험, 한민족 정체성, 교류 경험 및 욕구,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지원 욕구 등 호주 및 뉴질랜드 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 친화 환경 및 의식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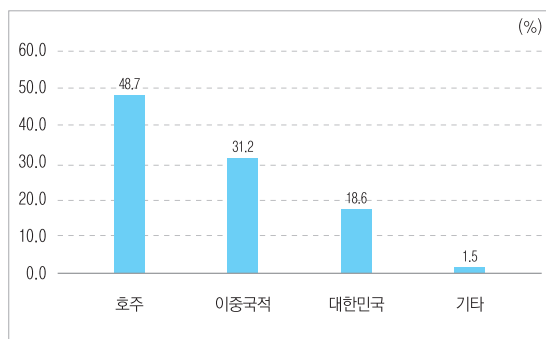
▶ 설문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최종 분석에 사용된 호주 재외동포청소년 응답자수는 총 201명으로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 60.7%, 남자 청소년 39.3%,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 35.0%, 초등학생 33.5%, 중학생 29.1%의 순으로 나타났음. 또한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14.02세였음.
- 최종 분석에 사용된 뉴질랜드 재외동포청소년 응답자수는 208명이며,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은 56.5%, 남자 청소년은 43.5%,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 53.8%, 중학생 29.3%, 초등학생 16.8%의 순이었으며,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15.26세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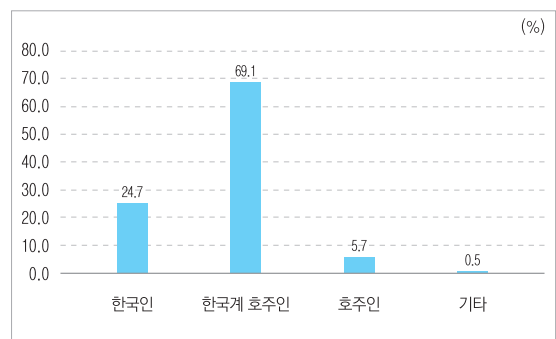
2) 주요 조사 결과

- ▶ [재외동포청소년의 국적과 정체성] 호주 재외동포청소년의 경우, 호주 국적자가 다수였으나 정체성에서는 한국계 호주인이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비율이 높았음. 뉴질랜드 재외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도 뉴질랜드인보다는 한국인이나 한국계 뉴질랜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보다 많이 가지고 있었음.

- 호주 재외동포청소년의 현재 국적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호주국적 48.7%, 이중국적 31.2%, 대한민국 국적 18.6%, 기타 1.5%였으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한국인 24.7%, 한국계 호주인 69.1%, 호주인 5.7%, 기타 0.5%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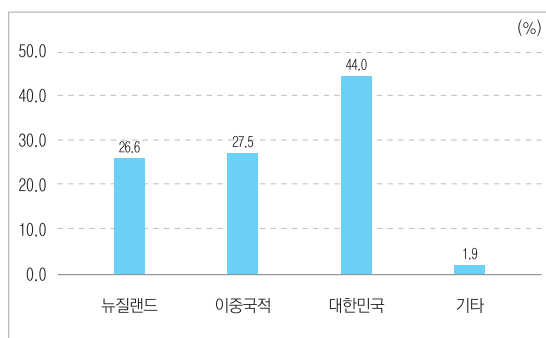


【그림 1】 현재 국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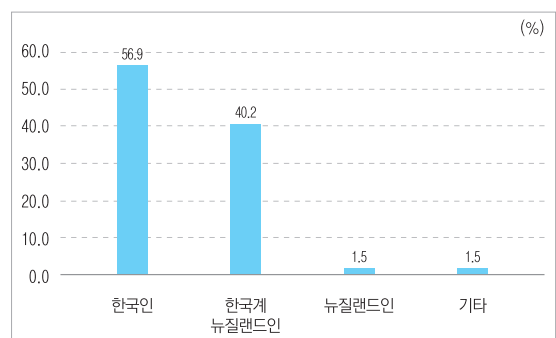


【그림 2】 나의 정체성

- 뉴질랜드 재외동포청소년의 현재 국적에 대한 조사 결과, 뉴질랜드 국적 26.6%, 이중국적 27.5%, 대한민국 국적 44.0%, 기타 1.9%였으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한국인 56.9%, 한국계 뉴질랜드인 40.2%, 뉴질랜드인 1.5%, 기타 1.5%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림 3】 현재 국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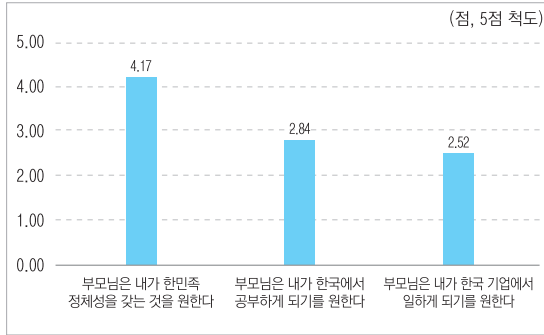


【그림 4】 나의 정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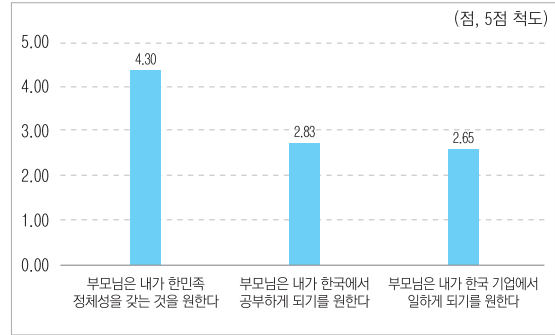
- ▶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한국 관련 인식] 부모들은 자녀들이 한민족 정체성을 갖기를 원하지만 한국에서 공부하거나 한국기업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음.

- 부모의 자녀관련 인식(5점 척도 기준)을 살펴볼 때, 호주 재외동포청소년 부모들은 자녀들이 한민족 정체성을 갖기를 원한다는 응답은 4.17로 높지만, 한국에서 공부하기를 원한다는 응답은 2.84,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것을 원한다는 응답은 2.5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뉴질랜드 재외동포청소년 부모들은 자녀들이 한민족 정체성을 갖기를 원한다는 응답은 4.30으로 높지만, 한국에서 공부하기를 원한다는 응답은 2.83,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것을 원한다는 응답은 2.6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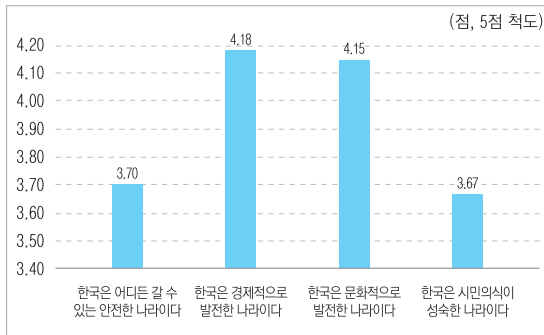
【그림 5】 부모의 자녀 관련 인식(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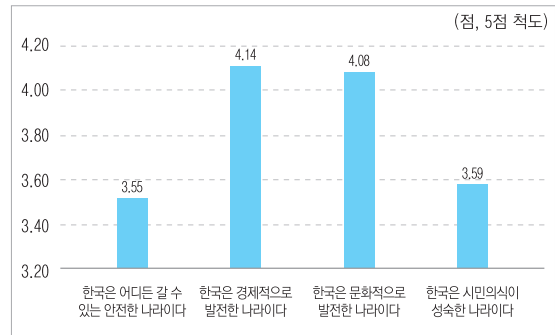
【그림 6】 부모의 자녀 관련 인식(뉴질랜드)

- ▶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국 관련 인식] 재외동포청소년들은 한국에 대해서 경제적·문화적으로 발전한 나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안전하다'거나 '시민의식이 성숙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또한 대한민국이 재외동포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호주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 조사를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한국을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 4.18, '문화적으로 발전한 나라' 4.15, '어디든 갈 수 있는 안전한 나라' 3.70, '시민의식이 성숙한 나라' 3.67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뉴질랜드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한국을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 4.14, '문화적으로 발전한 나라' 4.08, '어디든 갈 수 있는 안전한 나라' 3.55, '시민의식이 성숙한 나라' 3.59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7】 한국에 대한 인식(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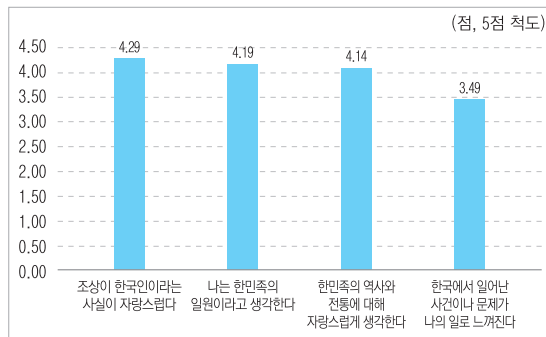


【그림 8】 한국에 대한 인식(뉴질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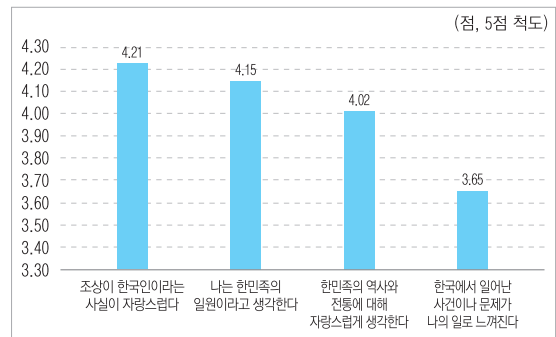
- 호주 재외동포청소년들은 대한민국이 재외동포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59.1%(‘그렇다’ 43.9%, ‘매우 그렇다’ 15.2%)가 동의하고 있었으며, ‘보통이다’가 36.9%,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4.0%(‘그렇지 않다’ 3.5%, ‘전혀 그렇지 않다’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뉴질랜드 재외동포청소년들은 대한민국이 재외동포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49.8%(‘그렇다’ 33.5%, ‘매우 그렇다’ 16.3%)가 동의하고 있었으며, ‘보통이다’가 41.4%,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8.9%(‘그렇지 않다’ 7.9%, ‘전혀 그렇지 않다’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한민족 정체성]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 정체성 의식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한국어 교육기관에서의 경험 여부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호주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 정체성('조상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4.29, '나는 한민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한다' 4.19,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4.14,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문제가 나의 일로 느껴진다' 3.49) 의식은 5점 만점에 평균 4.23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민족 정체성이 4.04, 경험이 없는 경우에 한민족 정체성이 3.58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음.
- 뉴질랜드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 정체성('조상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4.21, '나는 한민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한다' 4.15,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4.02,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문제가 나의 일로 느껴진다' 3.65) 의식은 5점 만점에 평균 4.0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민족 정체성이 4.00, 경험이 없는 경우에 한민족 정체성이 3.90이었음.



[그림 9] 한민족 정체성(호주)



[그림 10] 한민족 정체성(뉴질랜드)

▶ [한국에서의 학업, 취업 욕구] 한국에서의 학업이나 한국 기업으로의 취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보다 부정적인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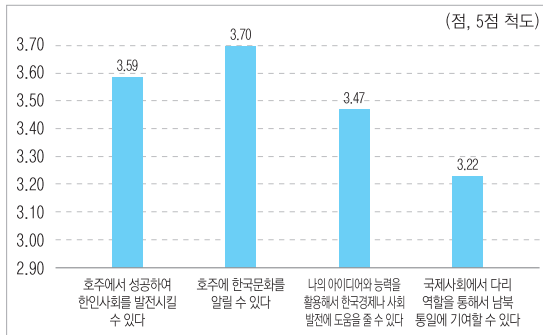
- 호주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국에서 학업을 하고 싶다는 응답은 21.6%(‘그렇다’ 14.6%, ‘매우 그렇다’ 7.0%), 한국에서 학업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41.7%(‘그렇지 않다’ 27.1%, ‘전혀 그렇지 않다’ 14.6%)로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인 응답보다 20.1%가 높았음.
- 뉴질랜드 재외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도 한국에서 학업을 하고 싶다는 응답은 26.5%(‘그렇다’ 17.2%, ‘매우 그렇다’ 9.3%), 한국에서 학업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46.1%(‘그렇지 않다’ 24.0%, ‘전혀 그렇지 않다’ 22.1%)로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인 응답보다 높게 나타남.
- 호주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다는 응답은 12.0%(‘그렇다’ 8.5%, ‘매우 그렇다’ 3.5%),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43.2%(‘그렇지 않다’ 29.1%, ‘전혀 그렇지 않다’ 14.1%)로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인 응답보다 31.2%가 높았음.
- 뉴질랜드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다는 응답은 30.0%(‘그렇다’ 19.7%, ‘매우 그렇다’ 10.3%),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36.9%(‘그렇지 않다’ 19.7%, ‘전혀 그렇지 않다’ 17.2%)로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인 응답보다 높게 나타남.

▶ [한국 방문 및 청소년프로그램 참여 욕구] 90%가 넘는 응답자들이 한국 방문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한국에서 개최하는 청소년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참여를 희망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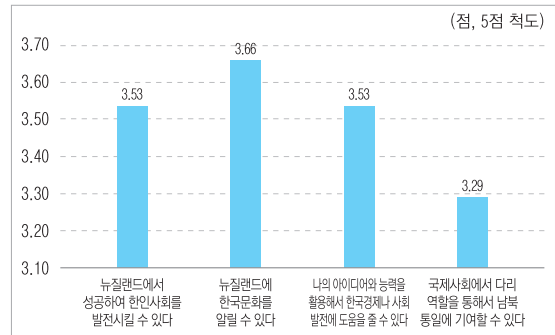
- 한국 방문을 희망하는 호주 재외동포청소년들은 91.9%(‘그렇다’ 28.1%, ‘매우 그렇다’ 63.8%)였으며, 뉴질랜드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86.8%(‘그렇다’ 24.8%, ‘매우 그렇다’ 62.0%)가 한국 방문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에서 개최하는 청소년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호주 재외동포청소년들은 18.6%였으며, 청소년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은 34.4%(‘그렇다’ 17.7%, ‘매우 그렇다’ 16.7%)로 나타남. 뉴질랜드 재외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도 한국에서 개최하는 청소년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28.6%였으며 청소년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은 43.9%(‘그렇다’ 21.2%, ‘매우 그렇다’ 22.7%)로 나타났음.

▶ [한국/한인사회 발전에의 역할] 한국/한인사회 발전에의 역할과 관련하여 ‘거주 국가에서 한국문화 확산자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가장 높은 반면, ‘남북통일에서의 가교 역할’에 대한 인식은 가장 낮게 나타남.

- 호주 재외동포청소년들은 ‘호주에 한국문화를 알릴 수 있다’ 문항의 평균 점수가 3.70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호주에서 성공하여 한인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문항의 평균 점수는 3.59, ‘나의 아이디어와 능력을 활용해서 한국 경제나 사회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문항의 평균 점수는 3.47,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다리 역할을 통해 남북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문항의 평균 점수는 3.22로 가장 낮았음(5점 척도 기준).
- 뉴질랜드 재외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도 ‘뉴질랜드에 한국문화를 알릴 수 있다’ 문항의 평균 점수가 3.66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뉴질랜드에서 성공하여 한인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문항의 평균 점수는 3.53, ‘나의 아이디어와 능력을 활용해서 한국 경제나 사회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문항의 평균 점수는 3.53,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다리 역할을 통해 남북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문항의 평균 점수는 3.29로 가장 낮았음(5점 척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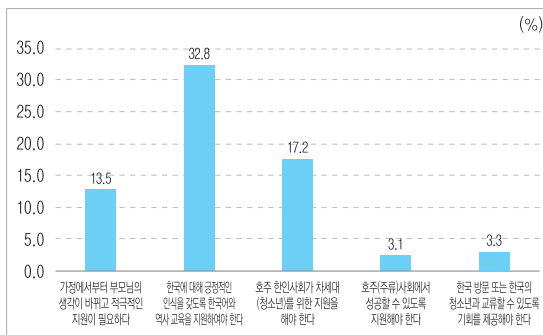
[그림 11] 한국/한인사회 발전에의 역할(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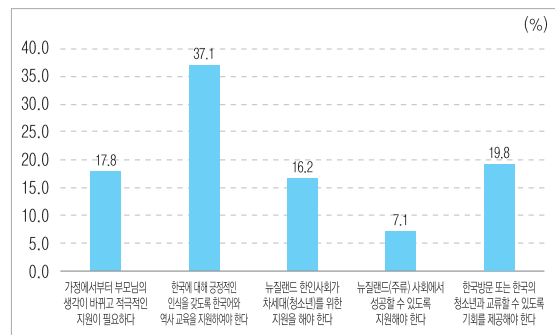
[그림 12] 한국/한인사회 발전에의 역할(뉴질랜드)

▶ [한국/한인사회 발전 기여에 필요한 지원] 향후 호주 재외동포청소년들이 한국/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 호주 및 뉴질랜드 재외동포청소년 모두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위한 한국어 및 역사교육 지원을 1순위로 들었음.

- 호주 재외동포청소년들은 1순위 ‘한국어 및 역사교육 지원’ 32.8%, 2순위 ‘호주 한인사회의 차세대 지원’ 17.2%, 3순위 ‘부모의 인식 변화와 지원’ 13.5%, 4순위 ‘한국 방문 또는 한국 청소년 교류 기회 지원’ 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뉴질랜드 재외동포청소년들은 1순위 ‘한국어 및 역사교육 지원’ 37.1%, 2순위 ‘한국 방문 또는 한국 청소년 교류 기회 지원’ 19.8%, 3순위 ‘부모의 인식 변화 지원’ 17.8%, 4순위 ‘뉴질랜드 한인사회의 차세대 지원’ 16.2%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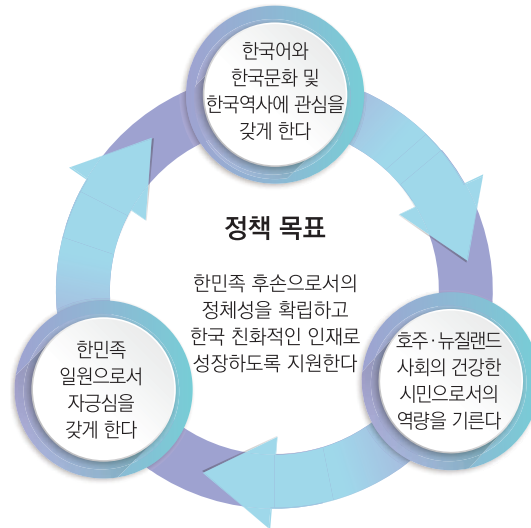
[그림 13] 한국/한인사회 발전 기여를 위해 필요한 지원(호주)



[그림 14] 한국/한인사회 발전 기여를 위해 필요한 지원(뉴질랜드)

3. 정책제언

- ▶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민족 후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 친화적인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3개의 세부목표를 제안하였음.



- ▶ 한국 친화적인 성장을 위한 부모 인식 개선, 한글학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재외동포청소년의 역량 강화 지원 확대, 한인커뮤니티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국내·외 동포청소년 교류 및 연수프로그램 개발 지원, 한국어 및 한국 문화 확산,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의 7개 정책 영역별로 4~6개의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총 35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음.

정책영역	세부 과제	제안 배경 및 내용
① 호주·뉴질랜드 재외동포청소년의 한국 친화적인 성장을 위한 부모 인식 개선	1. 한국 친화 가정(Korea friendly home) 조성 지원 2. 다문화가정 등 가정 특성을 반영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3. 호주·뉴질랜드 교육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부모특강 실시 4. 동포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이벤트 및 교육·상담 프로그램 개발 5. 초등학교에서의 한국어과목 채택을 위한 동포 부모 모임 및 학교 지원(호주) 6. 동포청소년 부모 간 소통 확대를 위한 한국문화체험교실 운영	- 재외동포청소년들이 한민족 정체성을 가진 한인의 후예로서 성장·발달하는데 직접적이고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환경 중의 하나가 가정환경임. - 특히, 가정환경 중에서도 부모의 청소년에 대한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를 위한 정책을 제안함.
② 한글학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1. 호주·뉴질랜드 맞춤형 한글학교 커리큘럼 개발 2. 교사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교육활동 자료 개발 지원 3. 우수 한글학교 교사·강사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4. 한글학교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 확대 5. 고대/사범대 학생을 활용한 한글학교 지원 6. 차세대 교사 양성을 위한 한글학교 졸업생의 네트워크 구축 및 참여 기회 확대	- 한글학교는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글과 역사·문화 등을 교육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자녀들의 한민족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 동포 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음. - 한글학교가 재외동포청소년 교육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기 위해서는 거주 국가의 특성을 반영하여 한글 학교별로 안고 있는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관련 정책을 제안함.

정책영역		세부 과제	제안 배경 및 내용
③	호주·뉴질랜드 재외동포청소년의 역량 강화 지원 확대	1. 호주·뉴질랜드 재외동포청소년 정체성 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2. 찾아가는 재외동포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개발 3. 재외동포청소년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한국문화 체험 자율모임 지원 확대 4. 청소년활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동포 청년단체의 지원	- 한인 동포사회의 경우에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 정체성 교육을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그 성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못함. - 우수사례의 발굴 등을 통하여 재외동포청소년들의 정체성 교육이나 인식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와 관련한 정책을 제안함.
④	호주·뉴질랜드 한인커뮤니티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1. 재외동포청소년 교육 및 활동 활성화를 위한 동포단체의 사업 지원 확대 2. 재외동포청소년 지원을 위한 동포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3.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차원에서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재외동포청소년 사업 참여 유도 4. 한인축제 등의 청소년참여프로그램 개발 5. 재외동포청소년 교육문화체험을 위한 기부문화 확산	- 재외동포청소년들이 한민족 정체성을 지닌 채 호주와 뉴질랜드 사회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호주와 뉴질랜드 한인 커뮤니티와 거주국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체험 기회가 많이 제공되어야 함. - 호주와 뉴질랜드 내 한인단체는 여타 대륙들 내 한인단체와 유사하게 원활한 세대교체를 이뤄내지 못한 경우가 많고, 특히 재외동포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한인단체 간 협력, 한인단체와 거주국 지역사회 단체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토대로 한 정책을 제안함.
⑤	국내외 재외동포청소년 교류 및 연수프로그램 개발 지원	1. 개별 한국 방문 청소년을 위한 한국 체험 프로그램 개발 2. 「청소년 민족캠프」 및 「한인 차세대 네트워크」 지원 확대(호주) 3. 세계 각지의 동포단체 연계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개발 4. 호주·뉴질랜드와 한국 지자체 및 교육청 간 교류 프로그램 개발 5. 한국 개최 재외동포청소년 교류 및 연수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 한국 방문을 통한 직접적인 체험은 재외동포청소년의 한민족 정체성 형성에 가장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영향을 주는 방안으로 확인되었음. -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청소년들의 모국 방문 초청 인원수를 확대하고 있지만, 재외동포재단 외에 다양한 기관이 주체가 되어 재외동포청소년을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서 이와 관련된 정책을 제안함.
⑥	호주·뉴질랜드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 문화 확산	1. 호주·뉴질랜드 정규학교 내 한국어강좌 확대 및 한국어교사 양성 지원 2. 원격교육기관 내 한국어강좌 개설 지원(뉴질랜드) 3. 호주·뉴질랜드 교원단의 한국 연수 활성화 4. 한국어 교육 및 문화 확산을 위한 한국 정부와 호주·뉴질랜드 정부와의 협력체계 강화 5. 한국문화 확산을 위한 이벤트 기획 및 참여 확대(뉴질랜드)	- 재외동포청소년들이 한민족 정체성을 가진 건강한 시민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지사회에 한민족 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함. -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문화적 접근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호주와 뉴질랜드 사회에 알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정책을 제안함.
⑦	호주·뉴질랜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외	1. 지역 재외동포청소년 사업 활성화를 위한 한국교육원 설치 및 파견 인력 확대 2. 한글학교 지원을 위한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3. 오세아니아 이민사 연구센터 설치 지원 4. 청소년교류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민족정체성을 형성해 주기 위해서는 관련 프로그램 제공뿐만 아니라 자신의 뿌리를 알게 하고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 프로그램의 제공과 함께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 구축 및 인력 지원 등이 필요하여 이와 관련한 정책을 제안함.

참고문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서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김경준, 김태기(2015).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I(연구보고 15-R15).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경준, 김정숙(2019). 국가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II(연구보고 19-R03).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진영, 강성봉, 김판준, 임영연, 정호원(2013). 재외동포 우수인재 모국귀환정책 비교연구. 2013 재외동포재단 조사연구용역 결과보고서(서울: 재외동포재단), pp. 1~285.